

# 晋本 華嚴經 研究

A study on "Jinbon Huayeumkyung"

柳 富 鉉 (Yoo, Boo-Hyun)\*

## ◁ 목 차 ▷

- |                   |                    |
|-------------------|--------------------|
| 1. 緒 言            | 3. 晋本 華嚴經의 流通과 現存本 |
| 2. 晋本 華嚴經의 漢譯과 補完 | 4. 結 言             |
|                   | <參考文獻>             |

## < 초 록 >

本稿는 晋本 華嚴經에 대한 精밀한 이해를 위해 宗래의 연구 내용을 검토해 보고, 晋本 華嚴經에 관한 文献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晋本 華嚴經의 漢譯과 補完 및 그 現存本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佛陀跋陀羅가 398년 道場寺에서 華嚴經 漢譯을 시작하여 420년에 初譯을 끝냈고, 다시 梵本 과의 교감을 시작하여 421년에 완료하였다. 이 때의 교감에는 8·9장의 經文이 빠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缺文은 680년 法藏이 校勘을 하여 補完 하였다. 둘째, 晋本 華嚴經이 처음으로 漢역된 이후 梁代까지는 50권본 華嚴經이 유통되었고, 隋代에 즈음하여 60권본 華嚴經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후 597년에 즈음해서는 50권본이 華嚴經의 正本으로 60권본은 或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다가 664년 즈음에 와서는 60권본은 正本으로 50권본은 或本으로서 유통되었던 것이다.

要語 : 晋本, 華嚴經, 佛陀跋陀羅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副教授 (boohyun@www.daejin.ac.kr)

접수일: 2004년 7월 28일    최초심사일: 2004년 9월 2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18일

<ABSTRACT>

This is for translating, correcting and seeing through the remains of the existing 'Jinbon Huayeumkyung' As the result of ll, we found out the followings. First, Butabatara has started to translate 'Jinbon Huayeumkyung' into korean at 'dojangsa' in 398 and finished his first book in 420. After that, he, moved by a book written in sanskrit, finished up in 421. Second, after his first translation of 'Jinbon Huayeumkyung', fiftieth books have been circulated for some time and the sixtieth just came out nowadays. After that, the fiftieth was transmitted into the south and the sixtieth the north.

Keywords : Jinbon, Huayemgung, bultabaltara

K C I

## 1. 緒言

華嚴經의 완전한 서명은 大方廣佛華嚴經이다. 이 화엄경은 “晋本華嚴經”, “周本華嚴經”, “貞元本華嚴經” 등 3종의 화엄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칭 “三本華嚴經”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명칭은 각각의 화엄경이 漢譯된 시대의 王朝의 명칭을 따라 붙여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본 화엄경은 화엄경 34품 전부를 東晋의 安帝 永初 1년인 420년에 佛陁跋陀羅가 한역한 것이고, 주본 화엄경은 역시 화엄경 34품 전부를 周(唐 武則天의 國號)의 則天武后 聖曆 2年인 699년에 實叉難陀가 한역한 것이며, 정원본 화엄경은 총 34품 가운데 제4품에 해당되는 入法界品만을 唐 德宗 貞元 11年인 795년에 般若三藏이 한역한 것이다. 그리고 화엄경의 卷數에 있어서 진본 화엄경은 종래 60卷本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서 “60화엄”으로 부르며, 주본 화엄경은 80권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80화엄”으로, 정원본 화엄경은 40권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40화엄”으로 호칭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삼본 화엄경 가운데 유독 화엄경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인 이해는 매우 疏略할 뿐만 아니라 誤謬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진본 화엄경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고찰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진본 화엄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진본 화엄경에 대해서 종래에 언급된 내용들을 검토해 보고, 다음으로 진본 화엄경에 관한 자료를 섭렵하여 정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晋本 華嚴經의 漢譯과 補完 및 그 現存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晋本 華嚴經의 漢譯과 補完

진본 화엄경에 대해서 종래 연구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한역은 佛陁跋陀羅에 의해서 418~420년 사이에 道場寺에서 이루어졌고,<sup>1)</sup> 다시 梵本과의 대교·교정작업이 시작되어 421년 12월 28일에 끝났는데 이 때 받아 적는 일을 맡

은 사람은 法業이었다<sup>2)</sup>는 견해가 있었다. 둘째 그 보완에 대해서는 처음에 불타발타라가 진본 화엄경 전체 34품을 한역하여 50권으로 만든 것을 후에 法藏이 680년에 日照가 가지고 온 梵本에 의해서 결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60권으로 만든 것으로<sup>3)</sup> 알려지고 있으며, 진본 화엄경이 번역 당시는 50 권이었으나 교정을 다시 해서 60권본이 되었다<sup>4)</sup>는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진본 화엄경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매우 소략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진본 화엄경의 한역과 보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고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 먼저 진본 화엄경에 관한 자료인 『出三藏記集』, 『衆經目錄』(七卷本), 『歷代三寶紀』, 『古今譯經圖紀』, 『衆經目錄』(五卷本), 『大唐內典錄』, 『華嚴經搜玄記』, 『華嚴經探玄記』, 『大周刊定衆經目錄』, 『開元釋教錄』, 『資福藏』·『續砂藏』, 『永樂北藏』 등을 섭렵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出三藏記集』(梁 僧祐444~518) 撰

- (1) 出三藏記集序卷第九：“華嚴經記第一 出經後記 - ① 華嚴經胡本凡十萬偈 昔道人支法領從于闐得此三萬六千偈 ② 以晉義熙十四年(418)歲次鶉火三月十日 ③ 於揚州司空謝石所立道場寺請天竺禪師佛度跋陀羅手執梵文譯胡爲晉 ④ 沙門釋法業親從筆受 ⑤ 時吳郡內史孟顛右衛將軍楮叔度爲檀越 ⑥ 至元熙二年(420)六月十日出訖 ⑦ 凡再校胡本至大宋永初二年(421)辛丑<sup>5)</sup>之

1) 張忠植, 『高麗華嚴版畫의 世界』, 亞細亞文化社, 1982. p.6.  
 강순애, 「大方廣佛華嚴經의 流通本에 대한 고찰」, 『漢城大學校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2000. p.84.  
 나카무라하지메著·박희준譯, 『불교경전산책』, 민족사, 1990. p.149.  
 카마타시게오著·장희옥譯, 『화엄경이야기』, 도서출판장승, 1992. p.28.  
 2) 카마타시게오著·장희옥譯, 『화엄경이야기』, 도서출판장승, 1992. p.28.  
 3) 末綱恕, 『華嚴經의 世界』, 春秋社, 1957. p.4.  
 나카무라하지메著·박희준譯, 『불교경전산책』, 민족사, 1990. p.149.  
 송일기, 「誠庵本 晋本 華嚴經(卷20)의 經題에 관한研究」, 『한국불교문화연구의 과제와 전망』-한국 불교문화학회 2004년도 동계 전국학술대회-, 2004. p.122.  
 4) 金知見, 「화엄경」,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신문사, 1997. p.395.  
 5) ‘辛丑’은 ‘宰酉’ 誤謬 임.

歲十二月二十八日校畢”<sup>6)</sup>

(2) 出三藏記集錄上卷第二 新集經論錄第一：“大方廣佛華嚴經五十卷 - 沙門支法領於于闐國得此經胡本 到晋義熙十四年(418)三月十日於道場寺譯出至宋永初二年(421)十二月二十八日都訖”<sup>7)</sup>

2) 『衆經目錄』七卷本(隋 開皇 14(564)年 法經等撰)

“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 - 晋義熙十四年(418)沙門佛陁跋陁羅等共法業等揚州譯”<sup>8)</sup>

3) 『歷代三寶紀』(隋 開皇 17(597)年 費長房撰)

“華嚴經五十卷 - 義熙十四年(418)於道場寺出 至宋永初二年(421)方訖 或六十卷 見竺道祖晋世雜錄”<sup>9)</sup>

4) 『古今譯經圖紀』(唐 貞觀(627~649)年中 靖邁撰)

“⑧ 沙門佛馱跋陁羅 此云覺賢 本姓釋氏 迦維羅衛國人 甘露飯王之苗裔 五歲出家 日誦數千言 博學群經 多所通達 禪律馳譽 同學僧迦達多閉戶坐禪 忽見賢來 驚問何來 答云暫至兜率致敬彌勒 言訖便銀 後數現神變 方知證不還果 時有秦僧智叡請賢還國 賢即許焉 乃附舶循海而行 經一島下 賢指曰 可止於此 舶主不肯 二百餘里爲風所吹 還至賢所指處 衆人方知神異 後遇便風 同侶皆發 賢不聽 動先發之者皆悉傾覆 又於夜中忽發 衆皆不肯 賢自牽一船獨發 其不發者悉被賊害 既達於此 與羅什相見 什所有疑必就諮決 盛行禪業 後往廬山復適江陵 凡所經歷數言未然 初衆人不信 後皆如說 儀軌 率素不俟華好志韻清遠雅有淵致 ⑨ 以晋安帝隆安二年(398)歲次戊戌至宋永初二年(421)辛酉於楊都廬山二處譯大方廣佛華嚴經六十

6)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357. 본고에서 인용된 『高麗再雕大藏經』은 1976년 東國大學校에서 간행된 影印本이다. 이하 동일하다.

7)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296.

8)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434.

9)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532.

卷觀佛三昧經八卷 …… 總一十五部合一百二十五卷 並究其幽旨妙盡文意 沙門法業慧義慧嚴等筆受<sup>10)</sup>

5) 『衆經目錄』五卷本(唐 麟德 1(664)年 靜泰撰)

“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 - 一千八十七紙 晉義熙年佛陀跋陀羅共法業等於揚州譯 成五十卷”<sup>11)</sup>

6) 『大唐內典錄』(唐 麟德 1(664)年 道宣撰)<sup>12)</sup>

大唐內典錄卷第三 歷代衆經傳譯所從錄一之三 東晉朝傳佛經錄卷第五：“華嚴經五十卷 - 義熙十四年(418)於道場寺出 至宋永初二年(421)方訖 或六十卷 見竺道祖晉世雜錄”<sup>13)</sup>

7) 『華嚴經搜玄記』(唐 智儼(600~668)述)<sup>14)</sup>

“此經本外國凡有十萬偈 昔晉道人支法領從于闐國得此三萬六千偈 以晉義熙十四年(418)歲次鶉火三月十日 於揚州謝司空寺 天竺禪師佛度跋陀羅手執梵文 譯胡爲晉 沙門釋法業親從筆受 時吳郡內史孟顛右衛將軍楮叔度爲檀越 至元熙二年(420)六月十日出訖 胡本至太宋永初二年(421)辛酉之歲十二月二十八日校畢”<sup>15)</sup>

8) 『華嚴經探玄記』(唐 法藏(643~712)述)<sup>16)</sup>

“…… 八翻譯者有東晉沙門支法領從于闐國得此三萬六千偈經 并請得北天竺大乘三果菩薩禪師 名佛馱跋陀羅 此云覺賢 俗姓釋迦氏 卽甘露飯王之苗裔 曾往兜率

10)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933.

11)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613.

12) 이 卷第三 歷代衆經傳譯所從錄一之三 東晉朝傳佛經錄卷第五 華嚴經五十卷의 내용은 앞의 3) 歷代三寶紀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13)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684.

14) 이 華嚴經搜玄記의 내용은 앞의 出三藏記集의 내용과大同小異하다.

15) 『高麗再雕大藏經』 제47책, p.3.

16) 이 華嚴經探玄記의 내용은 晉本 華嚴經의 缺文과 補完에 關係 매우 유의하다.

天就彌勒問疑 以晋義熙十四年(418)歲次鶉火三月十日 ⑩於揚州謝司空寺 別造護淨法堂 於中譯出此經時 堂前有一蓮花池 每日有二青衣童子自池之出堂 灑掃供養 暮還歸池 相傳釋云 以此經久在龍宮 龍王慶此傳通躬自給侍 後因改此寺名為興嚴寺 ⑪沙門法業及慧嚴慧觀等親從筆受 時有吳郡內史孟顛右衛將軍楮叔度為檀越主 至元熙二年(420)六月十日出訖 至大宋永初二年(421) ⑫十二月二十日與梵本再校勘畢 於法界品內從摩耶夫人後至彌勒菩薩前 所欠八九之經文 今大唐永隆元年(680)三月 內有天竺三藏地婆訶羅唐言日照有此一品梵本 法藏親共校勘 至此欠文奉勅與沙門道成復禮等譯出補之”<sup>17)</sup>

9) 『大周刊定衆經目錄』(唐 天冊萬歲 1(695)年 明佺等撰)

大周刊定衆經目錄卷第二 大乘重譯經目卷之一：“大方廣佛花嚴經一部六十卷 - 或五十卷 一千八十七紙 右東晋義熙十四年沙門佛陀跋陀羅於揚州道場寺譯 出長房錄<sup>18)</sup> 成五十卷”<sup>19)</sup>

10) 『開元釋教錄』(唐 開元 18(730)年 智昇撰)

開元釋教錄 卷第三 總括群經錄上之三：“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 - 初出元五十卷此 後人分爲六十 沙門支法領從于闐國得梵本來 義熙十四年(418)三月十日於道場寺出 元熙二年(420)六月十日訖 法業筆受 見祖祐二錄”<sup>20)</sup>

11) 『資福藏』(1175年)・『磧砂藏』(1231年~1322年)

大方廣佛花嚴經 入法界品三十四之十二：“…… 故令善財身柔軟光澤 - 已上一段五紙餘經 ⑬ 自東晋義熙年覺賢禪師翻譯之後 傳寫之人脫落也 歷涉朝代補綴攸厥 聖宋元佑年福州等覺禪院開大藏經印版 方檢唐垂拱年中天竺日照法師續法界品

17) 『高麗再雕大藏經』 卷47책, p.472.

18) ‘長房錄’은 歷代三寶紀(隋 開皇 17(597)年 費長房撰)의 異稱임.

19) 『高麗再雕大藏經』 卷31책, p.804.

20) 『高麗再雕大藏經』 卷47책, p.1005.

及于闐法師實又難陀新經校勘合入貴文理接續法寶無缺矣”<sup>21)</sup>

12) 『永樂北藏』(1421年 ~1440年)

大方廣佛華嚴經 入法界品三十四之十二：“…… 故令善財身柔輭光澤 - 賢首藏師探玄記云 自下九位智識皆是舊翻于闐本所欠 應是西域覺賢之所畧耳 ⑭余共日照三藏勘天竺諸本及崑崙本并于闐別行本 並皆同有此文 ⑮是以於大唐永隆年西京西太原寺三藏法師地婆訶羅唐云日照共京十大德道成律師等奉勅譯補<sup>22)</sup>沙門復禮親從筆受”<sup>23)</sup>

다음으로 위에 소개된 자료를 종합하여 진본 화엄경의 한역과 보완에 대해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진본 화엄경은 예전 支法領이 于闐國에서 胡本 10萬偈 가운데 3萬偈를 얻어 온 것에 유래한다. 佛陀跋陀羅(불타발타라는 ‘覺賢’으로 칭한다. 迦維羅衛國 사람으로 본성은 釋氏이고 甘露飯王의 苗裔이며 五歲에 出家하였다)가 晉 安帝 隆安 2(398)년(혹은 晉 義熙 14(418)년 3월 10일) 司空謝石이 楊州에 세운 道場寺 [혹은 謝司空寺]에 護淨法堂을 짓고 화엄경의 한역을 시작하여 [후에 廬山으로 장소를 옮겨 한역을 계속하였다], 元熙 2(420)년 6월 10일에 初譯을 끝냈다. 이 때 法業, 慧嚴, 慧觀 등이 親從筆受하였고, 吳郡內史인 孟顛와 右衛將軍인 楮叔度가 檀越이 되었다.

다시 梵本과의 교감을 시작하여 宋 永初 2(421)년 12월 28일 [혹은 20일]에 완료하였다. 이 때의 교감에는 法界品內에 摩耶夫人으로부터 彌勒菩薩 앞까지 8·9장의 經文이 빠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缺文에 대해서 唐 永隆 1(680)년 3월에 法藏(賢首大師)이 西京의 西太原寺

21) 여기에서 인용된 『資福藏』과 『續藏』의 내용은 『中華大藏經』(제12책, p.600)의 校勘記에 수록된 『資福藏』과 『續藏』의 夾註이다.

22) 『永樂北藏』을 통해서 보완된 내용을 헤아려 보면, 大方廣佛華嚴經卷第48 第4張 20行 13字(『中華大藏經』 제12책 p.589 下段 15行 13字) 時부터 同卷 第13張 4行 15字(『中華大藏經』 제12책 p.593 中段 4行 15字) 擇까지이다.

23) 『中華大藏經』 제12책, p.593.

三藏法師 地婆訶羅(天竺의 三藏으로 '日照'로 칭함)와 함께 梵本 및 崑崙本과 于闐의 別行本을 가지고 校勘을 하였고, 道成律師·沙門復禮等 과 함께 황제의 명으로 譯出하여 補完하게 되었다.

### 3. 晋本 華嚴經의 流通과 現存本

진본 화엄경의 유통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불타발타라가 진본 화엄경을 처음으로 한역하였을 때에는 50卷本으로 유통되었고, 후에 法藏이 680년에 日照가 가지고 온 梵本에 의해서 결락된 부분을 보완했을 때에는 60卷本으로 유통되었으며,<sup>24)</sup> 또는 진본 화엄경이 번역 당시에는 50권본으로 유통되었으나 교정을 다시 해서는 60권본으로 유통되었던 것<sup>25)</sup>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진본 화엄경이 50권본과 60권본으로 나누어져 유통된 것은 진본 화엄경 한역 초기에 발생한 缺文에 대한 補完이나 진본 화엄경에 대한 교정의 與否에서 그 요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60권본은 680년 法藏이 缺文을 補完하기 이전에 이미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 현존본에 관해서는 寺刊本을 중심으로 한 강순애의 연구<sup>26)</sup>가 있을 뿐, 진본 화엄경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나 소개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진본 화엄경의 유통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를 망라하고 이를 토대로 50권본과 60권본의 유통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제 진본 화엄경의 유통에 관한 자료를 망라하면 다음과 같다.

24) 末綱恕, 『華嚴經の世界』, 春秋社, 1957. p.4.

나카무라하지메著·박희준譯, 『불교경전산책』, 민족사, 1990. p.149.

송일기, 「誠庵本 晋本 華嚴經(卷20)의 經題에 관한 研究」, 『한국불교문화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불교문화학회 2004년도 동계 전국학술대회-, 2004. p.122.

25) 金知見, 「화엄경」,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신문사, 1997. p.395.

26) 강순애, 「大方廣佛華嚴經의 流通本에 대한 고찰」, 『漢城大學校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2000년, pp.87-90.

- 1) 『出三藏記集』(梁 僧祐444~518)撰  
出三藏記集錄上卷第二 新集經論錄第一：“大方廣佛華嚴經五十卷”<sup>27)</sup>
- 2) 『衆經目錄』七卷本(隋 開皇 14(564)年 法經等撰)  
“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sup>28)</sup>
- 3) 『歷代三寶紀』(隋 開皇 17(597)年 費長房撰  
“華嚴經五十卷 …… 或六十卷”<sup>29)</sup>
- 4) 『古今譯經圖紀』(唐 貞觀(627~649)年中 靖邁撰)  
“沙門佛跋陀羅 …… 譯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sup>30)</sup>
- 5) 『衆經目錄』五卷本(唐 麟德 1(664)年 靜泰撰)  
“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 - 一千八十七紙 …… 成五十卷”<sup>31)</sup>
- 6) 『大唐內典錄』(唐 麟德 1(664)年 道宣撰)
  - (1) 大唐內典錄卷第三 歷代衆經傳譯所從錄一之三 東晉朝傳佛經錄卷第五：  
“華嚴經五十卷 - …… 或六十卷 見竺道祖晋世雜錄”<sup>32)</sup>
  - (2) 大唐內典錄卷第六 歷代大乘藏經翻本單重傳譯有無錄卷第二：“大方廣佛華嚴經 - 六十卷 一千八十七紙 或五十卷者南本”<sup>33)</sup>
  - (3) 大唐內典錄卷第八 歷代衆經見入藏錄第三：“大方廣佛華嚴經 - 六十卷 六帙”<sup>34)</sup>
  - (4) 大唐內典錄卷第九 歷代衆經學要轉讀錄卷第四：“大方廣佛華嚴經 - 六十卷 或五十卷 一千八十七紙 紙二十八行”<sup>35)</sup>
- 7) 『大周刊定衆經目錄』(唐 天冊萬歲 1(695)年 明佺等撰)

---

27)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296.  
28)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434.  
29)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532.  
30)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933.  
31)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613.  
32)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684.  
33)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732.  
34)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751.  
35)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760.

- (1) 大周刊定衆經目錄卷第二 大乘重譯經目卷之一：“大方廣佛花嚴經一部六十卷 - 或五十卷 一千八十七紙”<sup>36)</sup>
- (2) 大周刊定衆經目錄卷第十三 見定流行入藏錄卷上：“大方廣佛花嚴經一部六十卷 - 新譯八十卷 一千八十七紙”<sup>37)</sup>
- 8) 『開元釋教錄』(唐 開元 18(730)年 智昇撰)
- (1) 開元釋教錄 卷第三 總括群經錄上之三：“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 - 初出元五十卷 後人分爲六十 …… 見祖祐二錄”<sup>38)</sup>
- (2) 開元釋教錄 卷第十一 別錄之一：“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 - 或五十卷”<sup>39)</sup>
- (3) 開元釋教錄 卷第十九 入藏錄上：“大方廣佛華嚴經六十卷 - 八會說 舊譯六帙 或五十卷 一千七十九紙”<sup>40)</sup>
- 9) 『開元釋教錄略出』(唐 開元 18(730)年 智昇撰)<sup>41)</sup>
- “大方廣佛華嚴經五十卷 - …… 自五帙 計一千一百紙”<sup>42)</sup>
- 10) 『新集藏經音義隨函錄』(後晋 天福 5(940)年 可洪撰)
- “大方廣佛華嚴經一部六十卷”<sup>43)</sup>

이상과 같은 자료에 의거해 진본 화엄경의 유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본

36)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804.

37) 『高麗再雕大藏經』 제31책, p.902.

38) 『高麗再雕大藏經』 제47책, p.1005.

39) 『高麗再雕大藏經』 제47책, p.1131.

40) 『高麗再雕大藏經』 제47책, p.1252.

41) 『開元釋教錄略出』은 『開寶藏』이나 『高麗藏』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崇寧藏』(1080-1103)에 처음 수록된 이후 『資福藏』(1175)·『善寧藏』(1277-1290) 등등의 藏經에 수록된 것이다. 그런데 『崇寧藏』에는 이 『開元釋教錄略出』의 앞의 著者表記 부분에 “唐西崇福寺沙門智昇撰”이라 기재되어 있고, 『資福藏』·『善寧藏』 등등에는 “庚午歲”란 글귀가 첨가되어 “庚午歲唐西崇福寺沙門智昇撰”이라 기재되어 있다(方廣錫, 佛敎大藏經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p.276).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開元釋教錄略出』은 “庚午” 즉 開元 18년(730)에 智昇이 撰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開元釋教錄略出』은 智昇의 撰述이 아니라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었다(方廣錫, 佛敎大藏經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 p.280).

42) 『中華大藏經』 제55책, p.489. 『中華大藏經』(中華書局編, 1984)에 수록된 이 開元釋教錄略出은 資福藏』을 底本으로 影印된 것이다.

43) 『高麗再雕大藏經』 제34책, p.734.

화엄경이 처음으로 한역된 이후 僧祐(444~518)가 살았던 梁代까지는 50권본 화엄경이 유통되었고, 隋 開皇 14(564)년에 즈음하여 60권본 화엄경이 출현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50권본은 南方으로 전래되었고 60권본은 北方으로 전래되었으며, 隋 開皇 17(597)년에 즈음해서는 50권본이 화엄경의 '正本'으로 60권본은 '或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다가 唐 麟德 1(664)년 즈음에 와서는 60권본은 '正本'으로 50권본은 '或本'으로서 유통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六十卷本이나 五十卷本의 내용 분량은 모두 1087紙[張]이었고, 1紙[張]는 28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음으로 진본 화엄경 현존본에 대해서 分卷別, 行款別로 분석<sup>44)</sup>·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分卷別 分析

(1) 不分卷本

① 房山石經本 : 『房山石經』<sup>45)</sup>

(2) 50卷本

① 敦煌寫本 : 『敦煌大藏經』<sup>46)</sup>

② 大藏經本 : 『開寶藏』, 『初雕藏』, 『金藏』, 『崇寧藏』, 『毘盧藏』, 『永樂北藏』

③ 寺刊本 : “韓相奉收藏本”

(3) 60卷本

① 敦煌寫本 : 『敦煌大藏經』<sup>47)</sup>

② 大藏經本 : 『契丹藏』(大字本 卷軸裝), 『再雕藏』, 『圓覺藏』, 『資福藏』, 『磧

44) 진본 화엄경 현존본의 분석에는 다음의 세 책이 도움이 되었다.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제12책 p.10.

蔡運辰編, 『二十五種藏經目錄對照考釋』, 1984. 제3책 p.32.

肖東發, 『漢文大藏經의 刻印及雕版印刷術의 發展』, 『北京大學百年國學文粹』- 語言文獻卷. 北京大學出版社, 1998. p.628.

45) 中國佛教協會編, 『房山石經』(全30冊), 華夏出版社, 2000년, 제책 pp.2 ~563. 『房山石經』의 이 不分卷本 晉 華嚴經은 唐 貞觀 8(634)년에 刻成된 것이다.

46) 敦煌大藏經編輯委員會編, 『敦煌大藏經』(全63冊), 華夏出版社, 2000년, 제21책 pp.2 ~538.

47) 敦煌大藏經編輯委員會編, 『敦煌大藏經』(全63冊), 華夏出版社, 2000년, 제22책 pp.572 ~784.

砂藏』, 『普寧藏』, 『永樂南藏』, 『徑山藏』, 『清藏』

③ 寺刊本 : “國寶 第202號” 等

2) 行款別 分析

- (1) 每行 17字本 : 敦煌寫本, 『契丹藏』(大字本 卷軸裝), 『再雕藏』, 『崇寧藏』, 『毘盧藏』, 『圓覺藏』, 『資福藏』, 『磧砂藏』, 『普寧藏』, 『永樂南藏』, 『徑山藏』, 『清藏』, “韓相奉收藏本”, “國寶 第202號” 等
- (2) 每行 14字本 : 『開寶藏』, 『初雕藏』, 『金藏』
- (3) 每行 34字本 : 『契丹藏』(小字本 蝴蝶裝)<sup>48)</sup>

위에서 분석해 본 것 이외에 이들에 대해서 유의할 만한 사실을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0卷本과 60卷本은 명칭에 나타나듯이 卷數와 各卷의 区分이 다르다. 그러나 총 34品の 모든 내용의 분량과 各品の 区分은 50卷本과 60卷本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단 총 34品の 各品 아래에 다시 세분된 細品の 区分은 50卷本과 60卷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契丹藏』(大字本 卷軸裝)은 60卷本이지만 各卷의 区分과 各品 아래에 세분된 細品の 区分은 다른 일반적인 60卷本과는 다르다. 1974年 중국 山西省 應縣 佛宮寺 木塔에서 발견된 『契丹藏』(大字本 卷軸裝) 60卷本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七<sup>49)</sup>을 일반적인 60卷本과 대조했을 때, 各卷의 区分과 各品 아래에 다시 세분된 細品の 区分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단, 총 34品 各品の 区分이 어떠한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契丹藏』(大字本 卷軸裝) 60卷本 大方廣佛華嚴經의 函號가 『新集藏經音義隨函錄』<sup>50)</sup>의 60卷本의 그것<sup>51)</sup>과 일

48) 每行 34字本の 『契丹藏』(小字本 蝴蝶裝)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논문이 참고된다.

千惠鳳, 「浮石寺三本華嚴經板」, 『田雲德總務院長華甲紀念佛教學論叢』 pp.1424~1457.

강순애 「大方廣佛華嚴經의 流通本에 대한 고찰」, 『漢城大學校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2000년 pp.87~90.

49) 山西省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合編, 『應縣木塔遺代秘藏』, 文物出版社. 199年. pp.20~27.

50) 後晉 天福 5(940)年에 可洪이 撰한 音義書 이다

51) 『高麗再雕大藏經』 제34책, p734.

치하고 있다는 것이다.<sup>52)</sup> 이를 통해서 『契丹藏』(大字本 卷軸裝) 60卷本 各卷의 구분은 『新集藏經音義隨函錄』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셋째, 『房山石經』1片的 行款은 대체로 24行, 每行 64字이고 전반부 第1片부터 第12片까지는 24行, 每行 100字이다. 그리고 房山石經本은 다른 본과 동일하게 모두 24품으로 구성되었고 各品 간의 구분 또한 동일하다. 그러나 50권본이나 60권본처럼 분권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各品の 細分도 나누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제34品 入法界品の 경우 다른 모든 화엄경에서는 “入法界品三十四之一”부터 “入法界品三十四之四”까지 4개의 細品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房山石經本에서는 제34品 入法界品을 비롯한 모든 各品の 내용이 細品の 구분이 없이 연이어 기술되어 있다. 또한 房山石經本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 본 “入法界品”의 缺文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이다.

넷째, 韓相奉이 收藏하고 있는 50 권본 華嚴經卷第二十九는 국내에 현존하고 있는 50卷本 晋 華嚴經 寺刊本 으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 4. 結 言

本稿는 晋本 華嚴經 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위해 종래의 연구 내용을 검토해 보고, 진본 화엄경에 관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진본화엄경의 漢譯과 補完 및 그 現存本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結言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① 진본 화엄경은 예전 支法領이 于闐國에서 胡本 10萬偈 가운데 3萬偈를 얻어 온 것에 유래한다. 佛陀跋陀羅가 晋 安帝 隆安 2(398)년(혹은 晋 義熙 14(418)년 3월 10일) 司空謝石이 楊州에 세운 道場寺 [혹은 謝司空寺] 에 護淨法堂 을 짓고 화엄경 의 漢譯을 시작하여 [후에 廬山으로 장소를 옮겨 漢譯을 계속하였다], 元 熙 2(420)년 6월 10일에 初譯을 끝냈다. 이 때 法業, 慧嚴, 慧觀 등이 親從筆受하였

52) 『契丹藏』과 『新集藏經音義隨函錄』의 函號는 「坐, 朝, 問, 道, 垂, 拱」이다(山西省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合編, 『應縣木塔遼代秘藏』, 文物出版社, 199年 . p.24).

고, 吳郡內史인 孟顛와 右衛將軍인 楮叔度가 檀越이 되었다. 다시 梵本과의 교감을 시작하여 宋 永初 2(421)년 12월 28일 [혹은 20일] 에 완료하였다. 이 때의 교감에는 法界品內에 摩耶夫人으로부터 彌勒菩薩 앞까지 8·9장의 經文이 빠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缺文에 대해서 唐 永隆 1(680)년 3월에 法藏 賢首大師 이 西京의 西太原寺 三藏法師 地婆訶羅(天竺의 三藏으로 '日照'로 칭함)와 함께 梵本 및 崑崙本과 于闐의 別行本을 가지고 校勘을 하였고, 道成律師·沙門復禮等과 함께 황제의 명으로 譯出하여 補完하게 되었다.

② 진본 화엄경이 처음으로 한역된 이후 僧祐(444~518)가 살았던 梁代까지는 50권본 화엄경이 유통되었고, 隋 開皇 14(564)年에 즈음하여 60 권본 화엄경이 출현하게 되었다. 궁극적으로 50권본은 南方으로 전래되었고 60권본은 北方으로 전래되었으며, 隋 開皇 17(597)年에 즈음해서는 50권본이 화엄경의 正本으로 60권본은 或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다가 唐 麟德 1(664)年 즈음에 와서는 60권본은 正本으로 50권본은 或本으로서 유통되었던 것이다.

③ 50卷本과 60卷本은 명칭에 나타나듯이 卷數와 各卷의 구분이 다르다. 그러나 총 34品の 모든 내용의 분량과 各品の 구분은 50卷本과 60卷本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단 총 34品の 各品 아래에 다시 세분된 細品の 구분은 50卷本과 60卷本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④ 『契丹藏』(大字本 卷軸裝)은 60 卷本이지만 各卷의 구분과 各品 아래에 세분된 細品の 구분은 다른 일반적인 60卷本 과는 다르다.

⑤ 『房山石經』1片의 行款은 대체로 24行, 每行 64字 이고 전반부 第1片 부터 第12片까지는 24行, 每行 100字이다. 그리고 房山石經本은 다른 본과 동일하게 모두 24품으로 구성되었고 各品 간의 구분 또한 동일하다. 그러나 50권본이나 60권본처럼 분권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各品の 細分도 나누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房山石經本에서는 “入法界品”의 缺文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이다.

⑥ 韓相奉이 收藏하고 있는 50권본 華嚴經卷第二十九는 국내에 현존하고 있는 50卷本 晉 華嚴經 寺刊本 으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參考文獻>

- 末綱恕, 『華嚴經の世界』, 春秋社, 1957.
- 東國大學校影印, 『高麗再雕大藏經』, 1976.
- 張忠植, 『高麗華嚴版畫의 世界』, 亞細亞文化社, 1982.
-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 蔡運辰編, 『二十五種藏經目錄對照考釋』, 1984.
- 나카무라하지메著·박희준譯, 『불교경전산책』, 민족사, 1990.
- 山西省省文物局·中國歷史博物館合編, 『應縣木塔遼代秘藏』, 文物出版社, 1991.
- 카마타시게오著·장희옥譯, 『화엄경이야기』, 도서출판장승, 1992.
- 金知見, “화엄경”,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신문사, 1997.
- 敦煌大藏經編輯委員會編, 『敦煌大藏經』(全63冊), 華夏出版社, 2000.
- 강순애, 「大方廣佛華嚴經의 流通本에 대한 고찰」, 『漢城大學校 창립 20주년 기념논문집』, 2000.
- 송일기, 「誠庵本 晉本 華嚴經(卷20)의 經題에 관한 研究」, 『한국불교문화연구의 과제와 전망』 - 한국불교문화학회 2004년도 동계 전국학술대회-, 2004.